

“종교, 불교계 표심에 큰 영향 없을 것”

특별기획

대선, 선택이 미래다

A15 특별기고- '불교와 정치'

A16 대선후보들이 말하는 불교

A18 미리 보는 대불교계 공약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불교정책과 종교관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종교는 '개신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종교는 '가톨릭'이었다.

세 후보 모두 올 대선에서 후보의 종교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후보에 대한 불교계의 호응도 또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문화재관리료 징수 문제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국가가 보존과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당연한 일", 정동영 후보는 "등산로 단독 이용권과 등산로 이용+문화재관리료 동시 이용권 2가지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 권영길 후보는 "국가와 시민단체, 조계종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를 묻는 질문에 이명박 후보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정동영 후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 권영길 후보는 "규제의 형식은 간소화하되, 그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설문지를 발송한 시점(10월 2일)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설문 상세 내용은 buddhanews.com에서>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설문조사 내용

1. 후보님의 종교와 종교관은?
2. 불교와의 인연은?
3. 올 대선에서 후보의 '종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①매우 크게 작용 ②큰 편이다 ③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④전혀 상관 없다
4.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리료 징수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화재관리료 문제를 풀 해법이 있다면?
5. 종교계에 대한 '고세'에 대해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6.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높다 ②높은 편 ③그저 그렇다 ④낮은 편 ⑤매우 낮다
7.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로 많은 전통사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다면?
8.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종교정책을 펼 계획이니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종교간 화합·국민통합 도모할 것”

1. 진정한 종교인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도자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전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열반하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많은 대덕스님들과 현재까지 좋은 인연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지관 큰스님과는 제 개인 사무실이 조계사 바로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3. 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4. 정부가 사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교문화재는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가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유산관리 문제, 예산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 높은 편

7. 전통사찰의 보존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여론을 수렴해 중첩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국민이 종교를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종교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율을 바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불교는 16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 사상,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종교간 화합과 국민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범종교적 활동과 종교간 교류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종교계 봉사활동 적극 지원할 것”

1. 종교는 가톨릭입니다. 부처님오신날에 종종 큰스님께서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자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2. 결정적인 정치적 고민이나 결단이 필요할 때, 백양사, 조계사, 통도사 이런 곳에서 큰스님들을 뵈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직을 그만두고, 지선 스님을 일고, 민심·하심·조심 글귀를 받아 정치적 좌우명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3. 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4. 사찰 사유지를 등산로로 개방한 사찰 측의 입장도 일견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등산로 단독 이용권과 등산로 이용+문화재관리료 동시 이용권 2가지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 더 좋은 방안이 제시한다면 기꺼이 동의하겠습니다.

5. 이 문제는 여론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이 아니며, 종교계 자체의 성찰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 높은 편

7. 유구한 역사의 보물들을 보존하고 있으므로 무차별적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용 편의시설 설치 등은 간소하게 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합니다.

8. 지난 군사독재정권시절 그 누구보다 앞장서 종교인들이 민주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미처 도우미의 손길을 펴 못하는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불사와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종교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갈 것이며, 더불어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 그리고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전통사찰 규제 형식 간소화 해야”

1. 가톨릭. 입적하신 어느 큰스님께서 '개뿔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의 역할을 정확히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종교라고 하면 이승의 삶보다 저승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세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2.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많은 스님들과 자주 만나서, 정치인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스님들과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4. 1차적인 해결은 조계종이 스스로 징수해온 문화재관리료의 용처를 명확히 밝히고 공개적,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대표소의 위치를 사찰 입구로 이전함으로써, 불필요한 통행료 시비를 스스로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국가와 시민단체, 조계종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운용과 징수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5. 민주노동당은 부를 축적한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일반적인 세금징수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징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높은 편

7. 규제의 형식을 간소화하되, 사찰들이 자연 속 조화로운 공간에 숨은 듯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8.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극소수 인사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잠시 질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풀어 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 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침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 상품



422 로체Q(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목)

특별가 235만원



424 비트Q(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소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代) | 강남·가리사점 412-2574~5(代) | 강남·가리사점 412-2574~5(代) | 강남·가리사점 412-2574~5(代)

하남류현전시장 (02) 3402-2520 | 하남류현전시장 (02) 3402-2520 | 하남류현전시장 (02) 3402-2520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강릉점 (033) 651-5223 | 대구점 (053) 586-0202 |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